



모바일로 만나는
SNS 매거진 NO.22

22호
2017년
10월

부티폴 데이

SNS
매거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Beautifulday

10.2017

C O N T E N T S

04 풍성한 한가위
추석 꿀 Tip



06 특별기고
정치후원금,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첫걸음

08 영화 속 선거㉠
<흑성탈출 : 종의 전쟁>

10 재외투표 수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꼭 챙겨야할
국민의 의무, 그리고 권리

12 내부기고
옥토버 서프라이즈

14 카드뉴스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16 여행지 소개
가을에 놓치면 아까운 여행지

18 기획기사
혁명의 나라 쿠바,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다

20 특별기고
도시와 건축에 진지하게 사유해야 할 때



22 웹툰
온라인 투표

24 한국선거방송
영상공모전

26 카드뉴스
'정치후원금' 이란?

27 독자마당
댓글을 만나다

SNS MAGAZINE
No.22 2017 10



발행일 | 2017. 10. 01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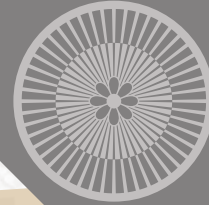
제작기획 | 미디어과

구독문의 | 02-507-4351

ahj0824@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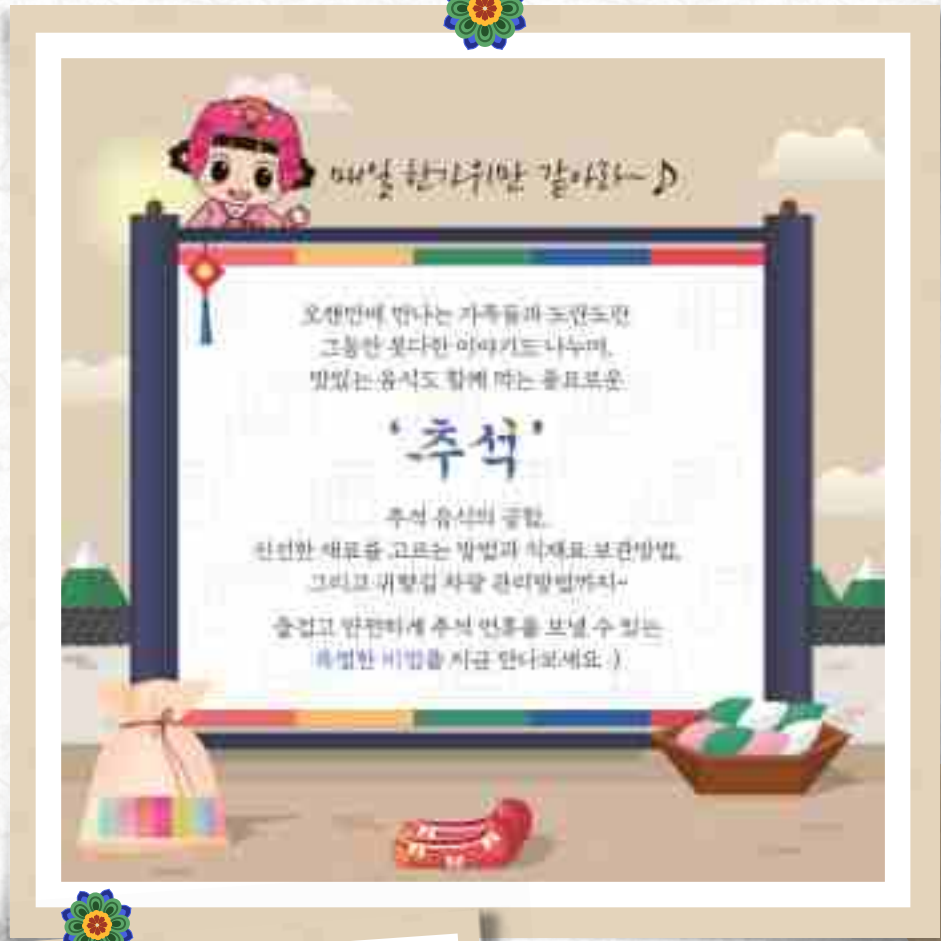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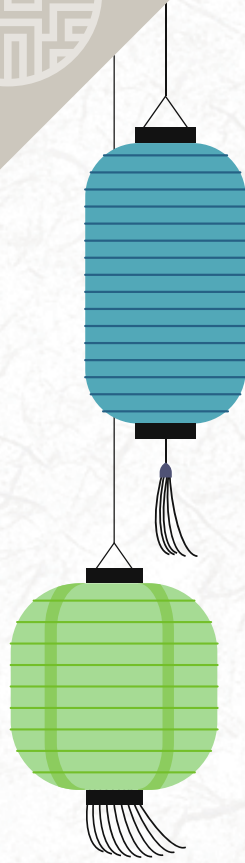
Beautiful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day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불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 꿀 Tip





정치후원금,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첫걸음



2010년 미국 대법원은 기업·노조·개인이 출마한 후보와 독립적인 목적이라면 액수의 제한 없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정치 후원금의 문턱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정치인 후원회로 볼 수 있는 ‘팩’(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제한 없이 돈을 쓰는 ‘슈퍼팩’(Super PAC)으로 모습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15년 상반기까지 모인 정치후원금 총액의 절반을 넘는 1억 7600만 달러가 158개 슈퍼리치(가문)에서 나왔다(뉴욕타임스 2015년 10월 10일 보도). 미국 전체 가구 수 1억 2천만 중 158개를 구성하는 가구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이들이 모두 백

인이고, 노령층에 속하며,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선거기간에 벌이는 캠페인의 편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실제 상당수가 공화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정치후원금

대한민국의 사정은 미국과는 또 다르다. 현행법상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벌탈 없이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당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국가 보조금 등을 포함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 기부금, 소속 정당의 지원금, 친족 기부금, 본인의 자산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모이지 않아서 문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없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가운데 이를 유지하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게다가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경험한 국민들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 후원의 개념으로 돈을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 또한 현실이다. 나아가 고위 공무원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누구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는지는 정치적 편향성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제대로 한국 정치문화에 자리 잡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후원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이유야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미국 정치학자 샤프 슈나이더는 말한다. “정치에서는 조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가정처럼 작은 사회집단에서조차 조직은 필요하다. 조직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다.”(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중)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후원금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골라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치라는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조직이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원칙과 소신, 가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열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선거라는 절차였고, 조직이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었다. 정치인 펀드를 떠올려보자. 애초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조차 정치인펀드가 불러 올 결과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만에 수천 명의 약정자가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 당초 예상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 모금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눈 밝은 정치인들이 나섰다. 한국처럼 정당 문화가 시민의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지역 모임이나 친목 모임 수준에서 조직화돼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정치인 펀드는 그들에게 빛이었다. 선거철 한때 선거운동원이나 핵심당원들이 참가하는 조기축구가 아니라도 정치적 효능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자신의 가치를 위한 투자

정치후원금 모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골몰하는 사이 유권자들은 한걸음 먼저 나갔다. 정치후원금으로 항의의 표시를 하기도 하고, 지원을 보내기도 하는 등 경제적 후원에 정치적 의사표시로서의 기능을 더했다. 이미

정치후원금은 그 자체로 진화를 시작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중앙당 후원금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여야 모두 후원회 구성에 분주해졌다. 각 정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 원까지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권자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입법인 만큼 각 정당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 정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탁의 차원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골라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삶의 포트폴리오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정치적 효능감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기 위한 노력,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다. 연말 정산 공제는 덤이다. 지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성공 나아가 한국 정치의 발전은 더한 기쁨이 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http://www.give.go.kr/>)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㉞

글 : 하어영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탐사보도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한겨레21 등을 거쳤음. 한국기자상(42회, 43회), 관훈언론상(29회), 민주언론상(20회) 수상. 저서<은밀한 호황>(공저)

때로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에게 성찰을 제공한다. 동물과 관련된 뉴스 등에서 “사람보다 낫다”란 말을 자주 하게 되니 말이다. 1968년 개봉한 영화 <혹성탈출>은 그런 아름다운 에피소드와 달리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의 모순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만약, 지구 시간으로 3978년 즈음에 유인원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후 1973년에 개봉한 <혹성탈출5: 최후의 생존자>까지 이 시리즈는 유인원들의 사회를 통해 인간 사회를 은유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만들어진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2011)은 좀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한다. 멀고 먼 미래에 유인원이 지구를 지배했다면,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된 건가? 인간은 어쩌다가 멸종했을까? 이후 ‘반격의 서막’을 거쳐 마지막 시리즈인 ‘종의 전쟁’까지의 새로운 3부작은 유인원과 인간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여정을 따르다 보면, 역시 인간이기에 별 수 없는 부분들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유인원 리더의 모습에서 그가 가진 고통과 내면적인 갈등도 보게 될 것이다. ‘왜 유인원은 인간과 대립하게 되었는가’란 질문에 영화는 ‘좋은 리더’도 막을 수 없는 비극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간보다 더 진보된 선택을 한 침팬지 리더

<진화의 시작>에서는 침팬지 시저(앤디 서키스)가 탄생했다. 시저는 치매 치료제의 실험 대상이 되며 높은 지능을 얻게 된다. 단순히 높은 지능이 아니라 학습과 고민을 통해 지능이 늘어가는 정도다. 시저는 인간의 품에서 자라지만, 결국 다른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학대를 당하고 이에 분노해 다른 유인원들과 반



제하지 못한 변수 하나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올해 개봉한 <종의 전쟁>에서 이제 시저는 아예 인간이 없는 곳으로 유인원들을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멸종 위기에서도 또 다른 야심을 품은 인간들이 있다. 그들의 무모한 계획, 그 계획을 막으려는 또 다른 인간들,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유인원들, 이 사이에서 결국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이 시리즈에서 흥미로운 전제 중 하나는 인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가 유인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위기는 인간이 자초한 것이라는 설정이다. 전쟁과 차별, 혐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지난 세기의 역사에서 배운 게 없었던 인간들은 유인원을 상대로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때의 유인원은 인간만큼 혹은 그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이들은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동물들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인간과 다를 게 없는 존재다. 그런데 주인공 시저는 여기서 인간보다 한 발짝 더 진보된 선택을 하는 리더

란을 일으킨다. 그렇게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 후, <반격의 서막>(2014)에서 인간과 유인원은 도시와 산에서 각자의 세계를 이루며 사는중이다. 이들은 서로를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시저는 자신이 이룬 가족과 세계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는 인간들과 일종의 타협을 통해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그가 통



영화 <혹성탈출: 종의 전쟁> (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 2017)>

2인자의 어둠을 알아볼 수 있는 리더



위대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갈등에 의해 생겨난다.



다. 영화 속 유인원 무리들은 인간의 총에 가족을 잃은 후 복수를 꿈꾸지만, 시저는 이때도 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존을 모색하려 한다. 서로에 대한 공격이 오가는 순간, 양쪽 세계 모두 파괴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시저는 영화 속 자신의 부하이자, 조직의 2인자나 다름없는 코바가 인간들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인간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집과 가족, 그리고 미래.”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이끄는 유인원들에게도 지구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끼리 먼저 연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리더다.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할 원칙이지만, 사실 오히려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 메시지일 것이다.

어둠까지 인정한 위대한 리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리더인 시저도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한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느라 다른 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한 선제공격을 부르짖는 코바 역시 원래 실험실의 유인원이었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실험 당시 새겨진 흉터가 있고, 마음에는 인간을 향한 증오가 가득하다. 코바의 시선에서 볼 때 인간과의 평화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다. 인간을 절대 믿지 않는 코바는 시저가 인간들과 교감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마도 자신을 키워주었던 인간과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시저에게는 코바의 증오심을 다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코바가 자신의 뜻에 반항하자, 시저는 물리적인 힘과 카리스마로 그에게 복종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가 이 영화가 말하는 진짜 ‘반격의 서막’이다. 코바는 시저를 꺾고 자신이 유인원의 리더로서 인간들을 공격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이 음모가 바로 인간과 유인원의 공존을 막은 최대의 비극이 되어버린다.

이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인 ‘종의 전쟁’은 코바를 죽였던 시저가 코바와 같은 입장이 되는 상황을 그린다. 군인들에게 아내와 아들을 잃은 시저는 과거의 코바처럼 복수심을 품고 인간들을 찾아 나선다. 그는 정말 똑같은 아픔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만, 그런 한편 스스로 코바를 떠올리며 그와 같은 감정을 품게 된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코바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지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종의 전쟁’은 시저가 이전보다 더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위대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갈등에 의해 생겨난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위대한 리더는 자신과 뜻이 다른 이의 어둠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될 것이다. 이 시리즈를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유권자인 우리들은 정치인들의 내면까지 파악하고 표를 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영화 속 시저와 같은 엄청난 갈등을 겪어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역시 ‘가능성’을 점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은 다른 이의 어두움에 정치인이 대응하는 방식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시저는 그들의 어둠을 더 어두운 방식으로 제압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겪었다. 그러니 이때 우리의 리더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의 어둠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다 이러한 상상력이 선택권을 가진 유권자에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흔히 고민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고민을 해볼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일 수도. <혹성탈출>은 바로 그 고민과 상상의 시작점을 짚어주는 영화인 셈이다. ㉞

글: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위 내용은 외부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구 반대편에서도
꼭 챙겨야 할
국민의 의무 그리고 권리

‘저는 아일랜드에 거주 중이에요’ 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건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습니다. ‘아, 거기 그 꽃다운 남자 배우들 가서 여행기 찍은 추운 나라 아니야?’ ‘아! 거기, 1년 내내 추운 나라’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했던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한 나라인 아이슬란드와 이름이 비슷한 탓에 자주 받는 질문이지요. 그만큼 아일랜드는 한국인에게 조금은 생소한, 최근에는 어학연수의 성지로도 뜨고 있는 유럽 북서쪽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남쪽 아일랜드 일부가 독립하게 되면서 현재는 아직 영국인 북아일랜드와 제가 겨우 중인 아

일랜드(Republic of Ireland)로 나누어 있는데요. 한국에서 아일랜드로 바로 오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회 이상은 다른 나라를 경유해야 하고 보통 15시간 이상의 비행을 해야지만 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의 나라입니다.

국내선거와는 다른 재외선거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인 장미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실사가 결정되기까지 길고 길었던 몇 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공공의 정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고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타지에 거주 중이던 저에게도 더욱이나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19대 대선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 특히 재외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인 75.3%를 기록했을 만큼 국내·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선거였는데요. 이런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저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겸허히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재외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고·신청을 마친 뒤에는 메일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선거는 선거일인 5월 9일부터 2주 앞선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 동안 각국의 지정 기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곳 아일랜드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랬겠지만 재외선거를 앞두고 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 사이에 대통령선거는 큰 이슈로 회자되었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함께 투표하러 갈 사람을 모집하는 투표판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사관 근처에 거주 중이어서 어학원을 가기 전 잠깐 대사관에 들러 투표에 임하였는데요. 8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한인교민들께서 현장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투표참여에 감사 인사를 건네주시며 훈훈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진행되었습니다. 재외투표를 위해서 한국 신분증을 준비하였고, 입구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 한 장과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주소 라벨지가 붙여진 회송용 봉투 한 매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투표와는 다르게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는 점, 그리고 투표용지가 전용 프린터에서 한 장씩 바로바로 출력되어 나오는 점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재외투표 이후에도 저,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은 한동안 대통령선거 얘기로 꽃을 피웠는데요, 재외투표로 인해 국내 선거일보다 이전에 투표하였기 때문일까요? 국내 소식을 TV, 라디오 등으로 전해 들으며 본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누가 당선자가 될지 가슴 졸였답니다.

선거, 국민의 의무

사실 저도 여느 젊은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선거일은 쉬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평범하고 어리석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고됐던 지난 시간들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지구 반대편 이곳에서도 투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를 통해 머나먼 해외에서도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 김지수** <아일랜드 거주 재외국민>



터닝포인트(Turning-point)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을 뜻하는 용어로, 특히 그 원인이 된 플레이를 일컫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이므로,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10월의 이변 혹은 10월의 충격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 용어가 그것입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직전 달인 10월에 갑자기 나타나, 어느 정도 승부가 점쳐지던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거나 심지어는 승패를 뒤집기까지 하는 사건·사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 보실까요?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기원: 1972년 美 대통령선거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1972년 대선으로 승세를 완전히 굳힌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



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닉슨은 대선을 12일 앞두고 베트남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그 유명한 “We believe that peace is at hand”라는 키신저의 발언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자회견은 당시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부동층의 표심을 흔들었고, 닉슨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베트남전쟁은 곧바로 끝났냐고요? 아뇨.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1975년이라는 연혁을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요.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의 탄생: 1980년 美 대통령선거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레이건 대통령은 전직 영화배우 출신으로 큰 키와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는 영화배우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후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에서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때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맞붙은 1980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50여 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질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카터 대통령의 노림수였던 인질 구출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면서 대선의 판도는 레이건 측으로 확실하게 기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매우 컸던 역대급 옥토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2004년 美 대통령선거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테러에 대한 상처가 시간이 흐르며 차츰 완화되어가던 때, 카타르 민영방송사 ‘알 자지라’가 공개한 영상 한 편으로 미국



美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뒤집어라!

‘옥토버 서프라이즈’

October surprise

전역에 다시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재점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사마 빈라덴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부시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9·11테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테러 위협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미국 전역을 다시 뒤덮었고, 여론은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 빌 새먼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대통령선거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덕을 봤다”라고 발언하여 옥토버 서프라이즈로서 영상의 영향력을 인정하였다는 사실도 눈에 띄네요.

자연재해가 낳은 10월의 이변: 2012년 美 대통령선거



대선을 조금 앞둔 10월 말,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하며 해안지대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어떤 영향을 가져왔냐고요? 바로 오

바마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이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하고 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허리케인 샌디에 의한 악재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우호적인 여론이 다수 형성되었으니 자연이 가져온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2016년 美 대통령선거



가장 최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등장했습니다. 바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었는데요.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사적인 이메일로 국가기밀이 포함된 공문서를 주고받는 등 공적인 일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힐러리 진영에 큰 악재로 작용하였는데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대선 직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 추락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재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쟁이 일자, 코미 국장은 11월 9일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지만 이미 승리의 여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후였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선거의 승패를 완전히 뒤집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후보자들이 자신을 PR하는 계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선거는 끝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더욱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기간이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음담패설 파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이변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겠죠?

이처럼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선거의 승세를 완전히 뒤집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후보자들이 스스로를 PR하는 계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선거 과정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니,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이처럼 선거는 끝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 표도 옥토버 서프라이즈처럼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글: 김유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면 안된다?

2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사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1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인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품·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A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빨리 오라는 30년 지기 이웃의 전화를 받고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부랴부랴 경로당으로 나섰다. 아침을 대충 때운 터라 배가 고팠지만 이웃과 함께 군것질거리로 때울 요량으로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를 애써 모른 채하며 발길을 서둘렀다.

경로당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내부에는 여느 날과 달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이웃 B할머니가 옆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A할머니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경로당 바닥에는 곱감과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담긴 접시들이 놓여있었다.

마침 출출했던 A할머니는 B 할머니의 옆에 자리를 잡고 인사는 하는 등 마는 등 접시에 가득 담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한 접시 먹고 나자 그제야 이게 웬 음식인가 궁금해졌다.



“이게 편 입이에요? 오늘 어느 집 잔치 입어?”



“아니~ 저기 저기, 군의원 드 보이죠? 명절 인사 차 경로당에 들른 거라네”

“아~ 군데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네네~ 뭐 어쩌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이웃 간에 이거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될지?”



얼마 전 TV에서 정치인에게 명절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받는다는 뉴스를 보다가 잠시 찻잔의 마음도 들었지만 애써 지웠다. ‘명절인사야 미풍양속이지 않나, 음식 정도 나눠 먹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테지’ 명절 인사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둘러보며 뭐 별일 있겠냐는 생각에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 음식을 돌린 C의원이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웃들로부터 그날 경로당에 있었던 노인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소문이 현실이 되었다. 노인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A할머니는 그날의 사건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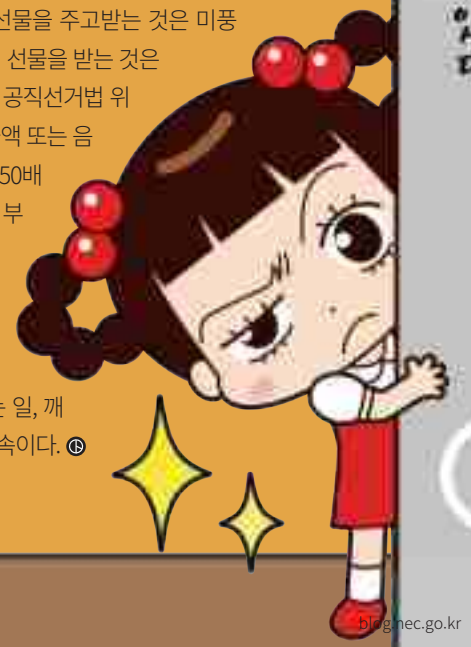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

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이에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한테 선물을 받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3천만 원 상한). 선물을 제공한 자는 처벌뿐만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안 주고 안 받는 일, 깨끗한 선거가 바로 미덕이고 미풍양속이다. ㉞



지켜보고
있다



특별기고

가을에 놓치면 아까운 여행지

얼마 전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장장 열흘로 늘어났다. 무려 열흘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가을에 떠나기 좋은 곳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행작가에게 ‘어디가 가장 좋아요?’라는 질문은 꽤나 가혹한 질문이지만 계절을 가을로 한정한다면 답은 한결 쉬워진다. 올 추석 연휴, 나아가 가을에 떠나기 좋은 전 세계 곳곳의 여행지를 추천해보겠다.

세계 3대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독일 뮌헨



큰 볼거린다. 단연컨대 지금까지 90개국을 돌며 마주했던 축제 중 최고라 생각된다. 의심은 거두고 떠나시라!



가을이면 지천이 붉게 물드는 강원도 태백시



태백의 단풍 명소는 두 손으로도 꼽기 힘들 정도인데, 먼저 10월 중순경 절정을 맞이하는 철암단풍공락지는 태백을 넘어 강원도를 대표하는 곳이다. 이곳은 낙동강 상류, 철암천 부근에 자리 잡은 단풍나무 군락지인데, 물에 비친 붉은 반영은 제아무리 수다쟁이라도 말을 잊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환상적이다. 날씨 운만 따라준다면 맑은 하늘과 붉은 단풍, 멋진 계곡의 삼중주를 하루 종일 감상할 수 있다. 단풍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함백산 드라이브 코스가 제격이다. 태백산과 함백산, 대덕산 등의 명산이 즐비한 태백의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단풍이 펼쳐지지만 함백산 만항재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중에서도 압권으로 꼽힌다. 특히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로 형형색색의 단풍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일명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도 발걸음을 할 만한 곳이다. 단풍도 멋지지만 산자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풍력발전기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가까이에서 보면 압도적이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 속을 걷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격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근처엔 한강과 낙동강, 오십천이 합쳐지는 대한민국 삼대강 꼭짓점 분수계가 있으니,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기를 받아 남은 한해를 힘차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열흘간의 세계 일주, 미국 뉴욕

여기 휴가나 명절 연휴를 이용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법이 있다. 바로 마지막 추천지인 미국 뉴욕으로 떠나는 것이다. 뉴욕은 그 자체로 작은 지구와도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엔 세상의 모든 인종,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음식, 세상의 모든 예술이 모여 있는 곳이다. 지금껏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문화를 원 없이 경험해볼 수도 있다. 각국 최고의 맛집은 뉴욕에 다 있다는 농담까지 있다. 가을에 방문하면 스케일이 다른 단풍까지 만날 수 있다. 뉴욕에 가을이 시작되면 한 지역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단풍으로 물든다. 도심 속 공원은 당연하거나와 노란 택시가 넘쳐나는 도로 옆에도, 뉴욕을 감싸고 있는 허드슨리버와 이스트리버 부근도 붉고 노란 단풍잎으로 뒤덮인다. ‘뉴욕의 가을’이란 영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게다가 뉴욕의 단풍나무와 단풍잎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상당히 큰 편이라 보기에 시원시원한 맛이 있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악명 높은 뉴욕의 날씨가 쾌청해지는 기간이라 여러모로 여행하기 제격인 계절인 바로 가을이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 세계 최고의 미술관은 물론 골목마다 숨어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 브로드웨이에서 매일 밤마다 펼쳐지는 뮤지컬, 세계 최고의 야경은 덤이라 할 수 있다. ㉞

*위 내용은 외부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 대원준 <여행작가>

-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추천길’ 선정위원
-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등 다수 도서 출판
- 마이 리틀 텔레비전,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 SBS 김영철의 편편투데이 등 방송 및 라디오 출연



혁명의 나라 쿠바,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다

19세기 말,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 살던 양헬 카스트로라는 남자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대서양을 건넌다. 그가 정착한 곳은 카리브해의 섬 쿠바였다. 양헬 카스트로는 첫 부인과 사별한 후 가정부였던 이와 결혼해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은 20세기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제적 인물로 성장한다. 피델 카스트로가 그다.

20세기 세계사의 문제적 인물

어린 시절 피델은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야구광이었다. 실력도 꽤 괜찮아서 뉴욕 양키즈의 입단 테스트까지 받았지만 실패한다. 야구의 꿈을 접은 피델 카스트로는 변호사가 돼 현실에 눈 뜨면서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던 미국과 그 앞잡이 바티스타 정권에 맞서는 혁명 투사로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그는 혁명가로서 로자 룩셈부르크처럼 천재적인 이론가이거나 레닌처럼 치밀한 설계자가 못되었다. 야구에 비하자면 그는 일단 휘두르고 보는 타자였고 번트 따위는 덜 생각 없이 치고 달리는 히트 앤드 런 신봉자였다. 1953년 7월 26일 소규모 군중을 이끌고 대담하게도 몬카다의 정부군

병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가히 전성기 선동렬의 공을 담장으로 넘기겠다고 배트를 휘두르는 리틀 야구 선수와도 같았다. 당연히 공권력에 진압된 뒤 체포된 그는 재판정에서 유명한 연설을 남긴다.

“..... 쿠바의 소농 85퍼센트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늘 계약 해지를 통고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입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이 유명한 열변으로 이 혁명적 리틀 야구 선수는 일약 혁명 야구팀의 유망주로 부상한다. 15년 징역을 선고받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풀려난 그는 멕시코로 건너가 철치부심 새로운 기회를 노린다. 그는 멕시코에서 그의 강력하지만 컨트롤 안되는 강속구를 받아 줄 멋진 배터리를 만난다. 체 게바라가 그였다.

그들의 혁명 동료들은 스페인 외인부대 출신의 베테랑으로부터 맹훈련을 받으며 혁명의 구질을 가다듬다가 마침내 1956년 11월 멕시코의 한 해변에서 그란마 호라는 오래된 배에 오른다. 정원이 20명이 될까 말까 한 배에 82명이 올라탔고 FBI와 멕시코 경찰의 감시를 피해 가장 불편한 항로를 택한 이 신흥 혁명 야구단을 태운 배는 쿠바 땅을 눈앞에 둔 산호초 지역에서 좌초하고 말았고 이 풋내기 혁명 야구단은 필사적으로 헤엄쳐서야 땅을 밟을 수 있었다. 1956년 12월 2일이었다.

허구한 날 삼진 아웃을 당하던 혁명 야구단이 마침내 1루 베이스를 밟은 것이다. 그러나 시원한 안타를 친 것이 아니라 내야 안타를 치고 죽을힘을 다해 달려서 겨우 이뤄낸 세이프였다. 거기에 이 풋내기들의 1루 진루를 허용하여 노히트 노런을 놓친 상대팀은 그야말로 맹렬한 공격을 가해 왔다. 결국 남은 것은 스무 명뿐이었다.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병력은 3만. 이쪽은 스무 명. 아마추어 야구 같으면 콜드 게임이 나도 여러 번 날 스코어였지만 혁명 야구단은 그 격차를 열정과 신념으로 극복해 나간다. 카스트로와 게바라 원투 펀치를 지닌 쿠바 혁명 야구단은 바티스타 측의 살벌한 공세를 끝끝내 막아내며 그 실력을 불려 나갔고 마침내 미국팀의 쿠바 용병 바티스타를 두들겨 강판시킨다. 1959년 1월 1일의 쿠바 혁명이었다. 그 뒤 638번이라는 기록적인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는 살아남았고, 미국의 앞마당에 들어선 사회주의 국가를 붕괴시키기 위한 경제적 봉쇄가 가해졌으나 쿠바는 혁명 후 근 6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건재하다.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았고 대학살이 수반된 공포정치를 펼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 사회주의 국가, 쿠바

일단 쿠바의 혁명은 꽤 유연했다. 정치범 숙청의 예가 없지 않으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 후 ‘피의 숙청’이나 ‘킬링 필드’가 존재하지 않았다. GDP의 10~11%, 국가 예산의 23~24%를 교육비로 쓰면서 문맹률이 세계 최저인 나라를 만들었고, 두터운 엘리트층을 형성,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다. 하나 더 추가하여 말한다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충실히 기능했던 쿠바의 헌법과 선거 시스템을 들 수 있으리라.

<총선은 5년마다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시의회 의원(대의원) 선출에서 시작해 국가 평의회 의장 선출까지 이어진다. 우선 시의회 선거에선 전국 각 시의 잘게 쪼개진 ‘기초 선거구’ 단위로 주민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을 받고 비밀·보통선거로 2년 반 임기의 의원들을 뽑는다. 이 시의회 의원들은 다시 자신들 가운데서 5년 임기의 도의회 의원과 ‘전국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시의회 의원들은 전국의회 의원 50%를 뽑으며 나머지 50%는 시 단위의 노조·학자·교육자·체육인·예술인·학생들, 곧 각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 (한겨레신문 2015.9.17 - <책소개> 쿠바의 민주주의, 정신상 옮김, 삼천리) 그리고 이 전국의회 의원들이 다시 서른한 명의 국가 평의회 평의원을 뽑고 정부 조직 구성원을 지명한다. 이 국가 평의회 의장이 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선거는 사실상의 ‘공개 선거’, ‘내정 선거’로 악명 높았다. 당에서 이미 내정된 사람을 두고 찬성과 반대만 표할 ‘자유’가 선거의 자유였던 것이다. 북한의 ‘흑백 투표함’은 그 유명한 사례의 하나였다. 이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나 중국 같은 대국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쿠바인들은 바로 그 기계적 선출 방식을 거부했다. 1976년 개헌을 통해 공산당과 그 산하 조직이 선거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1992년에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또다시 헌법을 수정했다. 소련공산당은 후보를 선택하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당이 선거라는 정치과정 어디에나 존재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좋게 보지 않았다. (호르헤 레스카노 - 위의 책 중)

물론 선출된 이들의 대부분이 공산당원들이고 수 십 년간 항상 ‘국가평의회장’은 피델 카스트로 1인이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산당 선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카스트로가 죽기 전부터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 온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자체로 쿠바는 세계에서 희귀한 존재였다. 피델 카스트로의 막내동생 라울은 ‘쿠바의 중국인’으로 불릴 만큼 중국식 개방을 꿈꾸었지만 카스트로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20세기적 사회주의의 상징이었다. 결국 쿠바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조율과 공생 기간을 거치며 전개될 것이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빨리빨리’가 익숙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쿠바가 행복해졌느냐?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아니냐?” 그러나 같은 섬에 위치한 옆 나라 아이티를 생각해 보자. 어쩌면 혁명이 없었다면 쿠바의 옛 독재자 바티스타는 아이티의 뒤발리에처럼 수십 년 정권을 누리다가 자식에게나 넘겨주면서 그 배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쿠바의 형편이 진흙 과자로 배를 채우는 아이티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1956년 12월 2일 낡아빠진 배를 타고 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온 80여 명의 남자들, 산호초에 걸린 배를 버리고 장비를 짊어진 채 수 킬로미터를 수영하여 그 땅을 밟은 이들의 거친 숨소리는 그 이념의 정체를 떠나서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역사에는 수많은 기적이 존재한다. ‘그란마 호’를 타고 쿠바로 향한 이들이 이룬 기적은 그 기적의 랭킹 순위에서 절대로 다섯 손가락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이 미래에도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는 오로지 쿠바인들에게 달렸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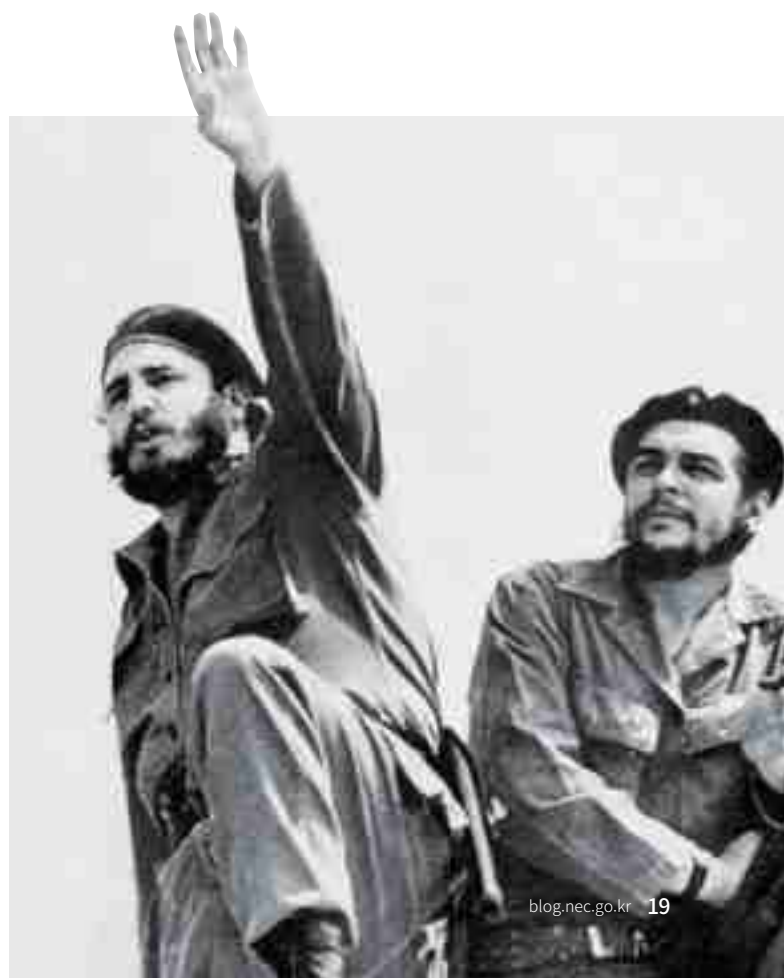
*위 내용은 외부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하산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이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역사 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역사에는 수많은 기적이 존재한다. 쿠바의 기적은 그 기적의 랭킹 순위에서 다섯 손가락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이 미래에도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는 오로지 쿠바인들에게 달렸다.





도시와 건축에 진지하게 사유해야 할 때



우리는 이제 건축이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맞물린 구조에 살고 있다. 타자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독창적이거나 혼용되어 있거나, 문화와 예술, 공학이라는 총체적인 집합체 안에서 건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건축을 모른다면 이제는 진정한 현대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기술 중심으로 움직였던 과거의 우리 도시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 건축은 인간의 삶 지척에 있는 친근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건축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의외로 별로 관심이 없다. 건축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며, 사고의 대상이자, 사유의 근거고, 삶의 현장이다. 건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은 유익미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축은 그냥 걸리적거리는 콘크리트 덩어리이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대상으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건축이 화두인 시대

루브르박물관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진 유리 피라미드, 파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같이 생긴 퐁피두센터, 화력발전소 형태를 그대로 살린 건물로 런던의 부활을 알린 테이트모던갤러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인구 50명의 한적한 시골 섬에 지어진 테지마미술관, 한강변의 정수장을 개조하여 공원으로 만든 선유도공원. 사람들은 왜 이런 건축물들을 보러 '그곳'을 찾아가는 것일까? 아마도 건축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 '건물이 주변과 어울리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정 지을 수 없는 심오한 건축의 세계, 지속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축 이론들,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조형의 세계,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오묘한 경험들. 도시 한편에 마련된 무대를 장식하는 수많은 건축물들은 충분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축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길러 두면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떠났을 때 훨씬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0여 년 전 사람들이 내 집 내부 꾸미기에 여념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마당이 있는 집, 평생 살 집, 즉 건물 짓기에 관심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본격적으로 건축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서울 시청, DDP, 새빛동동성, 서울역 앞 고가 등 서울 시내에 새로운 건축이 발표될 때마다 시민들의 관심은 그 곳을 향해 쏠리고 건물은 화제의 중심에 선다. 바야흐로 건축이 화두인 시대다.



글 : 양진석(건축가 & 공학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객원교수
일본 교토대학 건축학과 대학원 졸업
PAI FORUM, NA21 주임교수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국회 인문학과정 주임교수
MBC 러브하우스, 신장개업 초대 건축가
JTBC 내집이 나타났다 초대 건축가

우리 도시와 건축의 현주소

건축은 국민성과 시대, 국가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다. 건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 나라 국민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제 도시는 국가 간 경쟁의 상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시와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도시와 건축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건조물로만 보이는 건축이나 도시, 기능만 부각되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과 공간의 진정한 철학적 가치를 고민하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결국 한 나라를 중요하게 결정짓는 도시와 건축 정책은 정치로부터 시작된다. 한 나라의 민도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바로 그 나라의 도시와 건축의 수준이다. 그러나 결국 도시와 건축은 정치가의 몫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발 얻기 경연장도 아닌 것이다. 결국 가치 없는 전시장 건축 행정의 혈세 낭비의 현장을 목격하고 감시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자 민도의 표시이다. 그러기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거니와 투표의 결과로서 국민이 원하는 도시 건축 정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위 내용은 외부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시와 건축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건조물로만 보이는 건축이나 도시,
기능만 부각되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과 공간의 진정한 철학적 가치를 고민하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대한민국 협회장 선거 D-100일 전..



다음날 아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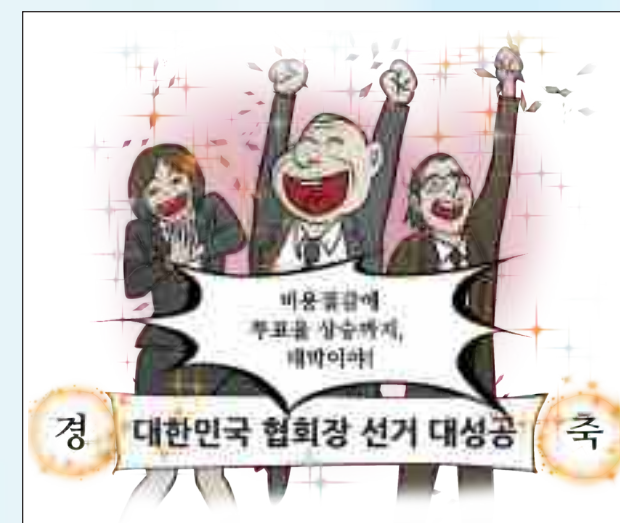


아따 온라인 투표 좋아부러~ 선거 참 편해졌데이~ 기능도 좋아유~

대한민국 협회장 선거 투표일 D-day
09:00 ~ 22:00 선거일 투표 중



대한민국 협회장 선거 개표종료 직후



글·그림 : 김사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가위처럼 풍성한 방송 어디 없을까?

선거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한국선거방송과 함께해요

KT Olleh tv - **273번** / T broad - **205번**



평생에 한번에 내가 나눴으면 정말 좋겠어~ 정말 좋겠어!

내가 만든 영상을 TV에 송출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

매일 영상 공모전



공모주제

분야1. 선거주제

예시 - 내가 경험한 선거
- 나에게 선거는 [] 다.
- 내가 바라는 선거 모습

분야2. 자유주제

예시 - 일상의 소소한 감동을 전하는 내용
- 여행, 취미, 지식, 행사 등 많은
시행자와 공유하고 싶은 다양한 내용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및 팀 지원 가능
※ 팀원 2인 이상 20인 이하



방송안내

한국선거방송 - KT 올레TV 273번
- 티브로드 205번

구분	첫방송 일자(예정)
제1편	10.26(월)
제2편	10.23(월)
제3편	11.6(월)
제4편	11.20(월)
제5편	12.4(월)

※ 방송 시간을 고려하여 각 편당 2~3편씩 사전투표일에 선전할 수 있다.



접수안내

접수기간: 2017.9.4(월) ~ 11.30(목)
접수방법: ① 제작영상 ② 접수지원서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etv_contest@naver.com)
제작안내: 1) 길이: 10분내 모든 제작 영상
2) 해상도: 1280x720 픽셀(4K급) 이상
3) 확장자: mp4, wmv, avi, mov
4) 용량: 500 MB 제한

※ 모든 송출은 영인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
※ 영상, 음성, 영인자, mp4, avi, wmv, mov, h264 등 지원
※ 영상, 음성, 영인자, mp4, avi, wmv, mov, h264 등 지원



시상안내

수상자 발표: 2017년 12월 13일(수) ※ 추후 변경 가능

구분	종류	작품수	상금
대상	중앙위원장상	1	100만원
최우수상	중앙위원장상	1	70만원
우수상	-	3	50만원
참려상	-	5	20만원

※ 접수기간 중 매일 우수자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선정된 우수자에게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별도로 소정의 상품과 참가자 모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한다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엄마의 정원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게 많은데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획일이 아닌 조율과 통일의 정치를
오늘날 위정자들에게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푸

민주시민이 되는 방법,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림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매3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도
느낀 것이지만 국민으로서
선거는 정말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소와 나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선거,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겠어요.



“망나농

익숙함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되고 싶어요!!

“요리조리

사실 선거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대선도 있었고,
블로그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가가다

매번 재미있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문화 곳곳에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네요.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blog
블로그



post
포스트



f
페이스북



t
트위터



k
카카오톡



i
인스타그램